

# 도농 교류의 장 '문 활짝'

### 임실군 천담권역 강변사리센터 개소... 문화복지 거점공간 역할 기대

지역민들의 문화복지 거점공간이자, 도농간 교류의 장이 될 천담권역 강변사리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 임실군은 지난 17일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과 지역주민, 방문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담권역 강변사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강변락락(樂樂) 파티 이벤트'를 주제로 한 기념식과 함께 마을 먹거리체험과 동아리 공연, 온가족 소통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문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열린 개소식은 강변마을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알리고,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천담권역의 체험관광과 농촌캠핑 활성화를 위해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사)농산업전략연구원, 천담권역의 3자간 상생교류협약과 함께 전북캠핑 클럽과 자매결연협약도 체결했다. 강변사리센터 건립은 천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64억원을 투입, 센터건립을 비롯해 마을회관정비, 주민쉼터 조성, 한옥장류체험장, 주차장 등 기초생활확충과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핵심사업인 강변사리센터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동아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수준 높은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메인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마당극과 통기타, 영화, 시 동아리 등 문화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해 4월부터는 센터 내 아영장을 개장,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추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에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준 지역주민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센터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넘어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활력넘치는 농촌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적성면을 슬로우 문화가 살아 숨쉬는 농촌마을 권역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개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 문화가 숨쉬는 농촌마을 만든다

### 순창군 적성면 종합개발사업 36억원 투입... 6개부문 진행

순창군이 적성면을 슬로우 문화가 살아 숨쉬는 농촌마을 권역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개발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올해부터 총 36억원을 투자해 적성 슬로우공동체권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성면 고원리와 내월리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2020년까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가지 기능별 분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꽃, 연못, 다랭이 논 등 옛 농경문화를 활용해 슬로우 푸드 마을을 추진 중인 적성면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연꽃을 테마로 한 사업들이다. 적성면 고원리

에 연꽃 할머니 이야기길을 만들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 또 연꽃 생태공원과 연 음식체험관을 만들어 도시민이 방문해 팸파티도 진행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슬로라이프 센터도 조성해 마을 주민들이 휴식과 함께 공동체 복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외에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고 마을 경관개선을 통해 적성면을 순창 특유의 농경문화가 묻어나는 슬로우 행복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적성면 슬로우공동체 권역 종합개발사업이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면서 본격적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면서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쌀고정직불금 8900여명에게 115억2100만원 지급 개시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쌀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7년 쌀소득보조금 고정직불금으로 115억2,100만원을 11월 하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8,900여명으로 농가당 1명이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원 전체 농가수 8,963호의 99.2%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해당된다. 남원시는 2017년 쌀소득보조금 고정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신청농지 형상과 기능유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하여 세밀한 점검을 거쳐왔다. 이에 따르면 총 지급면적은 1만1,432ha로 ha당 지원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107만6,416원, 농업진흥지역밖은 80만7,312원이며,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로 논 농업에 이용된 논지로서 농업인은 0.1ha부터 30ha까지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정직불금은 전국 10~12월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가 결정되어 내년 1월 지급되기 전에 쌀 생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년보다 한달여 일찍 지급한다"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강천산 여성전용 화장실

## 전국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은?

### 순창 강천산 여성전용화장실, 공모에서 동상 수상

강천산 여성전용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제19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군부대 등 총 102개 화장실이 응모했으며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4개소가 아름다운 화장실에 선정됐다. 관련하여 10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는 시상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강천산 여성전용 화장실은 한해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강천산에 여성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완료했다. 지상 1층 99.11㎡규모로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화장실, 수유실, 탈의실, 장애인화장실, 휴게실 등을 갖춰 여성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범죄 등 위급상황 예방을 위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과 외부에는 방범용 CCTV도 설치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화장실 전면을 유리와 타공판으로 활용해 자연채광을 유입해 은은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내 정화용 환분 비치, 관광객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편안한 휴게공간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내 집 화장실처럼 깨끗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겨울나기 준비 완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순창군이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의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최근 취약계층 340가구의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255가구의 가스 자동 잠금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150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점검·수리도 진행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가스시설 안전장치(타이머폭) 보급사업은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건장증 등으로 인한 가스과열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는 특별히 취약계층 홀더사업을 추진하여 10월 중순까지 군내 취약계층 150가구의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사업을 완료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주민들은 내년 초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소방합동훈련 실시

임실군은 지난 17일 임실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건조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지진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소방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고 및 전파절차, 직원대피 및 피난유도, 초기대응 방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인명구조 및 부상자 후송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피 절차 숙지에 중점을 뒀다. 심민 군수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전처럼 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방훈련과 순찰 등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보건소 질병관리본부장상 수상

### 만성질환 사업기획·건강조사 FMTP 종합평가대회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가 지난 15일 '2017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종합평가대회'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본부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 운영하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관계자 및 교육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대회에서 남원시는 유공기관 표창과 동시에 포스터 평가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여 경경사를 맞이하였으며 독거노인을 위해 실시한 만성질환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 효과 분석 및 사업계획을 제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이제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21세기 주요 개발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원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